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나 영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Middle School 1st grade Music Text Books

2011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나 영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나 영

박나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2010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5
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5
2. 2007 개정 음악과 목표와 내용	5
3.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9
4. 음악과 평가	9
제2절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지도 내용에 대한 변화	11
1. 음악과 7차·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악 내용비 교	11
제3장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 교과서 국악 내용 분석	16
제1절 16종 음악교과서의 국악 제재곡 분석	16
제2절 국악 수록곡의 활동영역 비율	22

제3절 제재곡에 따른 영역별 국악 내용 분석	23
1. 노래 부르기	23
2. 악기 연주하기	37
3. 음악 만들기	45
4. 감상하기	47
 제4장 결론 및 제언	 60
 참 고 문 헌	

표 목 차

<표 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육과학시술부 검정 16종 음악 교과서	3
<표 2> 2007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6
<표 3> 중학교 1학년 음악과 내용 체계표 - 활동영역	7
<표 4> 중학교 1학년 음악과 내용 체계표 - 이해영역	8
<표 5> 중학교 1학년 음악과 내용 체계표 - 생활화영역	9
<표 6> 음악과 개정 전·후 교육과정 비교 - 활동 영역	11
<표 7> 음악과 개정 전·후 교육과정 비교 - 이해 영역	12
<표 8> 음악과 개정 전·후 교육과정 비교 - 생활화 영역	13
<표 9>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삭제·신설된 항목	14
<표 10> 16종 교과서에 나타난 제재곡 분류	16
<표 11> 국악 수록곡의 활동영역 비율	22
<표 12> 가창곡 장르별 분류	25
<표 13> 지역에 따른 음악적 분류	26
<표 14> 토리에 따른 음악적 분류	29
<표 15> 시조 및 가곡 수록 현황	31
<표 16> 판소리·창극·단가·수록 현황	33
<표 17> 창작노래 및 기타악곡 수록 현황	35
<표 18> 기악영역 - 악기별 분류	39
<표 19> 기악 영역 - 내용 분류	41
<표 20> 창작영역 수록 현황	46
<표 21> 감상영역의 내용 분류	49
<표 22>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 분류 - 기악곡	54
<표 23>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 분류	56

ABSTRACT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Middle School 1st grade Music Text Books

Na-Young Park

Advisor: Prof. kay Pahk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2007 revised music curriculum which is practiced in July 31st, 2007. The activity part of Korean classical music is analyzed throughout the 16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 1st year and its improvement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2007 revised music curriculum would be implemented from 2009 according to the grades; for elementary 1st and 2nd year in 2009, for 3rd and 4th year and middle school 1st year in 2010, for middle school 2nd year in 2011, and for middle school 3rd year in 2012 in consecutive order. In current middle school, only 1st year students use the music textbook which is based on this curriculum and thus it is high time to develop new music textbook. To begin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and the significance of Korean classical music will be examined. The portion of Korean classical music occupied in current textbooks of middle school 1st year will be dealt with among Korean classical music, Korean Gagok and

western music. Also, the songs which are contained in different 16 textbooks are analyzed centering around an activity of singing, instrumental music, creation, and appreciation. Lastly, the content of Korean classical music is compared and analyzed which is presented in various textbooks.

The course of Korean music education in this revised curriculum can be mainly summarized into three. Firstly, the classical music education in school should pursue its essential worth. Students should be given chances to search the great worth of it in class. Secondly, the original worth of the classical music should be pursued for the sake of future society.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be open-minded and develop creative power through music class. Thirdly, this music has to find the role as a center of the sphere in relation to western music and non-western music via education.

In order to figure out how much weight each music has in 16 different textbooks of middle school 1st year, the analysis of the songs in each textbook is made. The occupation rate of classical music is 44.4% at maximum and 20% at minimum. While western Gagok occupies two thirds among them, it accounts for one third or one fifth. That is, the number of songs of classical music is short comparing to western Gago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at should be improved by analyzing 16 textbooks when the music textbook is revised.

The solution toward this matter is as follows:

At first, when a song of Minyo is selected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extbooks, to select a variety of pieces of music and a distinctive Minyo of different region is a good way to do. And not only should Minyo, but also Pansori, Gugakgayo, Sijo, Gasa, Gagok, Jobga and Goryegayo sui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be included so that they can have access to a variety of music.

Secondly, for the part of instrumental music, the introduction of the strings and its execution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in order that students may experience their own music culture. Also, the textbook should equip its uniformity and expertise lest it should confuse many teachers and students because of its inconsistency in contents between many textbooks. For reference, the video of real rendition of the musical instrument which is in textbooks and a various audiovisual materials should be made and given to

students along with textbooks.

Thirdly, the focus of learning instrumental music would not be on the perfect performance, but on the expressiveness of that music. In addition, it should give more concern to keep students feeling pleasure while they express their own music.

Fourthly, the content of classical music which is appreciated in middle school should not be limited to give dictionary explanation, but needs to give diverse and precise explanation about songs and to develop and spread the educational materials to appreciate songs.

As the each textbook shows much difference in content, the more cautious edition is needed for more effective education. Also, every textbook should include systematic and cohesive content of classical music.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적 본성은 인간 본질적 속성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예술적 본성은 인류사의 초기부터 드러났다. 초기의 인류 조상들은 그들이 비록 동굴에 거했을지라도 그 동굴에 벽화를 그렸고, 그들이 돌칼을 사용했던 시절에도 그 손잡이에 문양 그려 넣는 일을 중요시하였다.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종교적 의식에서도 춤과 노래와 기악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음악적 본성과 능력은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교육에서도 필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¹⁾ 즉 음악교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예술적 의미를 수용하고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된 교과이다.²⁾

국악 교육의 경우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국악 교육은 배우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음악에 담긴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알아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성을 배우는 것이다.³⁾

국악이 꼭 학교 교육 안에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말이 많았었다. 그것은 전통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학습되거나 또는 그 전통은 오늘날 그다지 생활에서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과거의 역사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반대로 전통의 교육을 강조하는 시절이 되었고, 여러 부처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대중매체의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전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2003년 11월 7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제2차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선호식을 갖고 한국의 판소리를 세계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했으며,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도 전통 교육을 주목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는 다문화가 한 나라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하여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의를 갖지 못하고 타 문화에 대해서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우선시 한다면 결국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

1) 권덕원 외 3인,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9), pp.45-46.

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p.90.

3) 김효선,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

다. 우리 전통적인 음악 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크게 대두되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가 축소되고 통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서 국악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은 좀 더 구체적화 되어 가고 더욱 확대 시켜 가야할 것이다.⁴⁾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학년별로 차례로 시행되게 되는데, 2009년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에, 2010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1년 3월 1일 중학교 2학년, 2012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순으로 도입될 예정이다.⁵⁾

현재 중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에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롭게 제작된 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음악과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음악의 역할 및 음악 교육의 효과 강조,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추구, 학교 음악 교육을 통해 배운 바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 음악의 수용, 음악과 선택 과목의 다양화 방안 모색, 국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 등으로 짜여져 있다.⁶⁾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 되면서 그에 따른 교과서도 새롭게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 중 국악영역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하기위한 바람직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 차후 음악 교과서 개편시 국악영역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 4) 하연주,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한 국악 가창영역에 대한 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
 - 5) 유진주,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3.
 - 6) 주대창, 『음악교육학 총론』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2009) p.3.

첫째,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내용을 비교해보겠다.

둘째, 국악교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국악, 한국 가곡, 서양음악의 분류를 통해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볼 것이다.

셋째,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6종에 수록된 제재 곡들을 중심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활동영역의 가창·기악·창작·감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출판사별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내용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악 교육을 위해 확대·보충되어야 할 교육내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정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토대로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사용된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의 출판사 및 저자는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천재교육 출판사는 두종의 교과서를 편찬하였으므로 교과서의 구분을 위해 민은기, 신혜승, 김세중 저자의 교과서를 천재교육1,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저자의 교과서를 천재교육2로 그 명칭을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16종 음악 교과서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명	약어
중학교 음악1	(주)교문사	전낙표, 신혜영, 이성은	교문
	(주)교학사	이홍수, 유명국, 김일영	교학
	(주)금성출 판사	양종모, 우광혁,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금성
	더텍스트	김미숙, 임강은, 이호경, 김혜선	더텍스트
	두산동아	최은식, 석문주, 권덕원, 황병훈, 이은하, 강선영, 오지영, 송주현, 홍수민, 박종화	두산
	(주)미래엔	장기범, 송무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	미래

컬처그룹		
(주)박영사	주광식, 진태식, 채은영, 최은미	박영
법문사	김정숙, 이성율, 지종문, 정원경	법문
성안당	정옥희, 이내선, 이희중, 박은정, 설창환, 이현창	성안
세광음악출 판사	허화병, 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세광
(주)지학사	윤명원, 정길선, 활병숙, 강세연	지학
천재교육	민은기, 신혜승, 김세중	천재1
천재교육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천재2
태림출판사	조효임, 강민선, 양은주, 한태동	태림
도서출판 태성	주대창, 정은경, 노혜정, 김동수	태성
현대음악	윤경미, 장보운, 곽은순, 곽성원	현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생활화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구성의 틀 면에서 보아도 이전에는 ‘이해’와 ‘활동’으로 구분되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 ‘이해’, ‘생활화’로 제시되고 있다. 새롭게 설정된 ‘생활화’영역은 음악의 실제적 활용을 중시하는 음악과의 성격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 측면은 ‘활동’, ‘이해’, ‘생활화’의 각 영역에 국악 관련 지침을 고루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활화’영역에 있는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는 국악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는 국악의 활용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통 음악’이라는 용어 대신 ‘국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새롭다.⁷⁾

2. 2007 개정 음악과 목표와 내용

가. 음악과 목표

음악과 목표는 음악의 성격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음악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총괄목표는 10년간의 음악과 교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전체 목표를 담고 있고, 학교급별 목표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7)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개요』(2007) p.6.

<표 2> 2007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총괄 목표	중등 교과 하위 목표
<p>·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형식의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 2. 음악을 개성있게 표현하고, 악곡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감상하게 한다. 3. 다양한 음악개념과 기본적인 기보체제를 이해하게 한다. 4.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첫번째 하위 목표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악곡들을 소재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하위 목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음악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번째 목표는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즉 음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개념을 학생들이 익히고 학습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학교 음악수업에서 음악적 개념의 이해 학습이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네번째 목표는 학생들이 음악을 애호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학교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음악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쁨으로써 평생 동안 음악을 가까이하면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⁸⁾

8) 권덕원 외 3인,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9), pp.148-50.

나. 음악과 내용 체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활동, 이해, 생활화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표 3>,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 활동 영역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영역에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2007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은 하나로 묶어 제시하였다. ‘활동’영역의 내용은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 중학교 1학년 음악과 내용 체계표 - 활동영역

구분	내용	
활동	노래 부르기	가곡, 민요 부르기 시조의 초장,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 간단한 2부 합창하기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하기
	악기연주하기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가락악기 연주하기 합주하기
	음악 만들기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여러 시대의 음악비교하며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2) 이해영역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에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2007교육과정에서는 위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음악 요소들을 어떻게 음악활동과 연관을 지어 가르칠 것 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였다.⁹⁾

<표 4> 중학교 1학년 음악과 내용 체계표 - 이해영역

구분	내용
이해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장단(중모리, 변형장단, 장단의 한배의 변화)
	임시표를 포함하는 가락
	음계(민요의 여러 조)
	마침꼴(V-I)
	형식(AB, ABC)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
	악곡의 특징(시조, 판소리, 창극, 오페라, 뮤지컬 등)
	악곡의 종류(시조, 가곡, 단가, 판소리 등 우리나라 성악곡과 예술가곡, 아리아 등 외국 성악곡, 산조, 시나위 등의 우리나라 기악곡과 소나타, 푸가 등의 외국 기악곡 등)

(3) 생활화영역

2007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한 영역으로 제시된 ‘생활화’는 음악을 즐기고, 우리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내외의 음악행사에 참여하고 발표하며,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고,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¹⁰⁾

9) 권덕원 외 3인,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9) pp.154-55.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p.22.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개요』 (2007) p.9.

10) 권덕원 외 3인,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9) p.155.

교육부,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22.

교육부,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10.

<표 5> 중학교 1학년 음악과 내용 체계표 - 생활화영역

구분	내용
생활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교내외의 음악행상에 참여하기 학교내외에서 음악발표하기 생활 속에서 음악활용하기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3. 음악과 교수 · 학습방법

2007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성공적인 교수 · 학습을 위해서 첫째, 다양한 악곡의 활용, 둘째, 최적의 학습 환경, 셋째, 학생의 수준, 흥미, 지역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강조하였다.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실음을 통하여 음악 용어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의 표현력과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개별 학습, 모둠별 학습, 프로젝트 수행,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사진, 영상과 같은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등의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지도한다.

-음악 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¹¹⁾

4. 음악과 평가

음악과의 평가는 교과의 성격과 교수 학습 내용에 따른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11) 교육부,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10.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1) 평가 계획

학습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평가의 범위와 수준은 단위별로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평가의 내용, 기준 및 방법을 학생들에게 예고한다.

(2) 평가 방법

각 영역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평가가 되어야 하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과정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 등도 반영한다. 실기평가, 실음 지필 평가, 관찰,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 한다. 정시 평가와 수시 평가를 되도록 고루 활용하고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 등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내용 영역별 평가

활동영역에서 표현 활동은 기초, 기능, 표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감상 활동은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이해영역에서는 음악용어 및 개념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되, 실음과 악곡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생활화 영역에서는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태도, 생활화의 의지 등을 평가한다.

(4)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계획과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학습 지도 계획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한다.¹²⁾

12) 교육부,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10.

제2절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내용의 변화

1. 음악과 제7차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악 내용 비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기보다 부분 수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다.¹³⁾

<표 6> 음악과 개정 전 · 후 교육과정 비교 - 활동 영역

구분	제7차	2007 개정
활동 영역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곡, 민요 부르기 ·시조의 초장 부르기 ·창작 국악곡 따라 부르기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음악요소를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 ·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든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13) 권덕원 외 3인,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9) pp.151-159.

유진주,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5.

<표 7> 음악과 개정 전 · 후 교육과정 비교 - 이해 영역

구분	제7차	2007 개정	
이해 영역	리 듬	·여러 가지 장단 ·변형 장단	·리듬, 장단, 가락, 화성, 형식, 음색 통합적 개념으로 제시
	가 락	·민요 음계 ·시김새	
	화 성	·여러 성부의 어울림 ·가락과 화음과의 관계	
	형 식	·긴 자진 형식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형식 ·성악곡(전통가곡, 시조 등) ·기악곡(연례악, 산조 등)	
	셈 여 림	·셈여림의 조화	
	빠 르 기	·빠르기의 조화	
	음 색	·민속 악기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 리	
	악 곡 의 특 징		·시조 ,판소리, 창극, 시나위, 수 제천 등이 포함된다.
악 곡		·우리나라 성악곡-시조, 가곡, 단 가, 판소리	

의 종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기악곡-산조, 시나위 ·연주형태-독주, 실내악, 관현악, 병주, 합주 ·시대의 흐름-근현대 전통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	--

<표 8> 음악과 개정 전 · 후 교육과정 비교 - 생활화 영역

	제7차	2007 개정
생활화	·바른 감상 태도 갖기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학교 내외의 음악행사에 참여하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 (의식과 음악)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가. 영역구분

무엇보다 두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역 구분의 변화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이해와 활동의 두 영역 구분되었지만 개정 2007년 교육과정은 활동·이해·생활화의 세 영역 구분으로 바뀌었다. 즉 활동과 이해의 순서가 바뀌고 생활화의 새 영역이 신설되었다. 생활화 영역은 1차 교육과정에 있었다가 2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영역 구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도 생활화를 강조했고 개정된 생활화 영역에서 보이는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가 7차 감상영역에도 제시된 것으로 보아 오로지 신설된 요소로만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생활화의 영역이 서두에서 말한 음악교육의 구성요소인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음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의 7가지 기본개념인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썸여림, 빠르기, 음색과 활동의 4가지 기본영역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구분이 사라졌다. 나열식으로 서술된 개정 2007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활동영역은 노래 부르기·악기 연주하기·음악 만들기·감상하기로 표기 되어있고 이해영역은

음악 개념, 악기, 악곡, 음악사,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 범위와 수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양은 축소되었지만 그 범위는 훨씬 확대되었다. 그 예로 이해영역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7가지 하위 범주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이 있어 체계상의 양은 많았지만 7개의 영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내용요소의 분량이 줄어들었다. 대신 악곡의 종류(놀이요, 노동요), 악곡의 특징(판소리, 병창, 줄풍류, 삼현육각), 한 배에 따른 형식, 시김새의 특징과 효과, 5음·7음 가락 부르기, 시조 초장 부르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동시에 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다. 삭제와 신설

개정 2007년 교육과정이 전 교육과정을 수정한 것이지만 상당한 부분이 삭제·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이해하고 보고 부르기, 노래를 듣고 평가하기, 보고 연주하기 등이 삭제되었고 함께 표현하기, 5음·7음 가락 보고 부르기, 가사의 말 붙임새 바꾸어 부르기,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 시김새의 특징과 효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표현하기,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등이 신설되었다.

<표 9>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삭제·신설된 항목

삭제된 항목	신설된 항목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이해하고 보고 부르기	·함께 표현하기
·노래를 듣고 평가하기	·리듬악기, 가락악기, 연주하기
·보고 연주하기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연주하기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
·다양한 악곡 연주하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표현하기
·연주를 듣고 평가하기	·장단의 세
·만든곡 발표하기	·정간보
·만든곡 듣고 평가하기	·말 붙임새
	·시김새의 특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곡의 형식 구별하며 듣기 ·악기 소리와 목소리 구별하기 ·연주 형태 구별하여 듣기 ·다양한 음악 듣기 ·음악을 듣고 토의하기 ·연주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배에 따른 형식 ·악곡의 특징(풍물, 판소리, 줄풍류 등) ·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 ·생활화 항목
---	---

라. 교육 내용 조직

개정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의 설정→교육내용의 선정→교육내용의 조직→교수-학습과정→교육과정 평가 등의 절차를 따른다. 앞서 비교했던 선정된 내용요소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보면 학년별로의 계열성은 잘 나타나지만 계속성이 미흡하다. 교육과정 내용이 점차 그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 체계 비교표를 보면 중간에 빠지는 항목 및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평가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부르기-평가하기, 연주하기-평가하기, 만들기-평가하기, 듣기-평가하기로 평가를 매우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으나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평가의 측면이 축소되었다.

제3장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 국악내용 분석

제1절 16종 음악교과서의 국악 제재곡의 분석

현행 16종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제재곡을 출판사별로 국악, 한국가곡, 서양악곡 세 분류로 나누어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16종 교과서에 나타난 제재곡 분류

영역 출판사	제재곡 분류	중학교 1학년 음악	
		곡수	%
교문	국악-칭칭이 소리, 쾌지나 칭칭 나네, 아리랑, 오나라, 싸름, 동창이 밝았느냐, 강강술래, 산도깨비	8	40
	한국 가곡-봉숭아, Reds Go Together, 희망의 나라로	3	15
	외국 곡-레가토로 노래해요, 도레미 송, 들장미, 기쁨의 찬가, 지구를 지켜요, 사장조 미뉴에트, 위풍당당 행진곡, 새장의 작은 새, 화이트 크리스마스	9	45
	전체 곡목 수	20	100
교학	국악-한오백년, 밀양 아리랑, 동창이 밝았느냐, 산도깨비, 풍년가, 몽금포 타령, 농악	7	30.5
	한국 가곡-중학생의 꿈, 산새가 아침을, 반딧불, 얼굴, 사랑가, 아름다운 세상	6	26
	외국 곡-행진, 즐겁게 노래하자, 여행자, 푸른 목장, 작은 세상, 사랑의 인사, 모두	10	43.5

	가 천사라면, 춤추는 소녀, 땅 위의 기쁨, 징글벨즈		
	전체 곡목 수	23	100
금성	국악-싸름, 옹혜야, 널리리아, 동창이 밝 았느냐, 자진 강강술래	5	23.8
	한국 가곡-봄, 어머니의 마음, 몽계구름, 음악 시간, 로봇 태권 브이, 별	6	28.6
	외국 곡-희망의 속삭임, 행진, 연가, 모리 화, 봉아완 솔로, 성자들의 행진, 보리수, 산 아가씨, 환희의 송가, 도나 도나	10	47.6
	전체 곡목 수	21	100
더택	국악-봄, 산도깨비, 우리 장단 배워 보자, 농악, 몽금포타령, 한오백년, 동창이 밝았 느냐,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임금님의 행차, 훨훨이, 타령	12	44.4
	한국 가곡-즐거운 봄, 리듬놀이, 봉숭아, 별, 축복받은 날	5	18.5
	외국 곡-이제 해가 비치네, 사랑의 협주 곡, 한때는 꿈에, 사운드 오브 뮤직, 피크 닉의 노래, 행진, 아름다운 방울 소리, 페 르시아 시장, 희망의 문을 향해, 들장미	10	37.1
	전체 곡목 수	27	100
두산	국악-진도 아리랑, 한강수 타령, 산도깨 비, 태산이	4	22.2
	한국 가곡-즐거운 봄, 내가 제일 좋아하 는 말, 나의 친구, 자장가, 나무의 노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6	33.4
	외국 곡-손을 잡고, 마법의 종, 벚꽃, 초원 의 노래, 경마 대회, 위스크 다라, 차카레 라, 보리수	8	44.4
	전체 곡목 수	18	100
미래	국악-몽금포타령, 진도 아리랑, 쾌지나 칭 칭 나네, 옹혜야, 황성 동그랑땡, 구구단,	7	23.4

	청산리 벽계수야		
	한국 가곡-봄이 오면, 얼굴, 그네, 어머니의 마음, 사랑가, 보물, 과일 이야기, 나의 친구, 갯벌, 뭉게구름, 오 필승 코리아	11	36.6
	외국 곡-푸른 목장, 오 수재너, 도레미송, 피크닉의 노래, 별을 보고, 아침, 즐거운 마주르카, 아들아, Memore,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생일 축하 노래, You are my sunshine	12	40
	전체 곡목 수	30	100
박영	국악-우리 장단 배워보자, 군밤 타령, 진도 아리랑,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홀로 아리랑, 까투리 타령, 너영나영, 뱃노래, 널리리야, 몽금포 타령, 풍년가, 동창이 밝았느냐	14	29.8
	한국 가곡-과일 이야기, 희망의 나라로, 어머니의 마음, 자장가, 봄	5	10.6
	외국 곡-노래는 즐겁다, 노래하자 레가토로, 조금씩 크게 노래해, 깊은 우정, 아름다운 나의 벗, 스와니 강, 모리화, 밤의 노래, 알리산, 벚꽃, 라사 사양계, 어린이들의 축제, 꽃은 지고, 람베람베, 찬 말리찬, 페르시아 시장에서, 하바 나길레, 안녕, 소맥꽃, 우스쿠다라, 인도의 노래, 찜뿔뿔, 아름다운 방울 소리,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오페라의 유령, 도레미 노래, good morning baltimore, 보리수	28	59.6
	전체 곡목 수	47	100
법문	국악-산도깨비, 옹헤야, 자진강강술래, 동창이 밝았느냐	4	28.6
	한국 가곡-봄, 어머니의 마음, 무궁화, 하나뿐인 지구, 기다리는 마음	5	35.7
	외국 곡-희망의 속삭임, 들장미, The	5	35.7

	Phantom of the Opera, 모리화, 검은 고양이 네로		
	전체 곡목 수	14	100
성안	국악-도라지타령, 너영나영, 한오백년, 청산리 벽계수야, 산도깨비, 방울 카드	6	31.6
	한국 가곡-즐거운 봄, 어머니의 마음, 생일 축하, 끼리끼리 분리수거, 눈이 올 것 같아요	5	26.3
	외국 곡-땅 위의 기쁨, 우리에게 평화를, 모리화, 벚꽃, 나는야 새잡이, 도레미 송, 내 어머니, 줌 갈 리	8	42.1
	전체 곡목 수	19	100
세광	국악-산도깨비, 아름다운 나라, 천안 삼거리, 너영나영, 몽금포타령, 진도 아리랑, 상주 모심기 소리, 타령, 동창이 밝았느냐	9	36
	한국 가곡-중학생의 꿈, 새봄, 금강에 살으리랴다, 우리들의 푸른 마음, 풍선, 아침의 노래, 모리화, 벚꽃, 즐거운 축제	9	36
	외국 곡-보리수, Smile Smile Smile, 자장가, 땅 위의 기쁨, 여행자, 즐거운 나의 집,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7	28
	전체 곡목 수	25	100
지학	국악-강강술래, 콩 꺾자 콩 꺾자, 널리리아, 동창이 밝았느냐, 옹헤야, 비단타령, 너영나영, 통영 개타령, 산도깨비, 홀로 아리랑	10	34.5
	한국 가곡-얼굴, 스승의 은혜, 나의 친구, 고향 생각, 도라지꽃, 볼레로, 별, 청소당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9	31
	외국 곡-행진, 미뉴에트, 즐거운 나의 집, 비브라 콤파니, 크스코스의 우편 마차, 아름다운 방울 소리, 도레미송, 마왕, 만리장성, 봉가완 솔로	10	34.5

	전체 곡목 수	29	100
천재1	국악-산도깨비, 옹헤야, 강강술래, 남누리 북누리, 동창이 밝았느냐, 어디로 갈꺼냐	6	26.1
	한국 가곡-즐거운 봄, 굴렁쇠, 오 필승 코 리아, 애국가, 성불사의 밤, 얼굴, 겨울 애 기	7	30.4
	외국 곡-홀라이 홀라호, 흰 구름, 냉면, 성자들의 행진, happy birthday to you, 나는야 새잡이꾼, 구름 속의 궁전, 작은 세상,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름다운 하늘	10	43.5
	전체 곡목 수	23	100
천재2	국악-태산이 높다하되, 몽금포 타령, 널리 리아, 강강술래, 꿰지나 칭칭나네, 오돌또 기, 국화 옆에서, 상저가	8	42.1
	한국 가곡-황소와 두루미, 아파트 마을, 지구가 방긋 자연이 방긋, 친구에게	4	21.1
	외국 곡-에델바이스, 작은 세상, 저녁 종 소리, 행진 ,즐거운 나의 집, 스와니 강, 마벨라 빔바	7	36.8
	전체 곡목 수	19	100
태림	국악-동창이 밝았느냐, 옹헤야, 진도 아리 랑, 너영 나영	4	20
	한국 가곡-고운 꿈, 봄이 오면, 즐거운 봄, 작은 연못, 생일 전날, 생일의 노래, 징 글벨, 로봇트 태권 v	8	40
	외국 곡-젊은이의 꿈, 모리화, 꽃은 지고, 축제의 북, 연가, 더 이상 날지 못하리, 도 레미 송, 보리수	8	40
	전체 곡목 수	20	100
태성	국악-겹침 노래, 해주 아리랑, 밀양 아리 랑, 홀로 아리랑, 장단 노래, 상주 모심기 소리, 전래 자장가, 사철가, 동창이 밝았느 냐, 가시버시 사랑	10	40

	한국 가곡-어머니의 마음, 아침 이슬, 거위의 꿈, 얼굴, 아 가을인가, 산	6	24
	외국 곡-슈베르트의 자장가, 모짜르트의 자장가, 즐거운 나의 집, 나는야 새잡이꾼,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마왕, 아름다운 나의 벗, 작은 세상, yello submarine	9	36
	전체 곡목 수	25	100
현대	국악-구 아리랑, 자진방아타령, 동창이 밝았느냐, 옹헤야, 상주 모심기 소리, 너영나영, 자진 사랑가, 진도 아리랑, 논실 타령, 새야새야, 신나게 북 쳐보자, 널리리야, 군밤 타령, 돈돌라리,	14	42.4
	한국 가곡-무궁화,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집, 얼굴 푸리지 말아요	4	12.1
	외국 곡-봄노래, 별을 보고, 위풍당당 행진곡, 챔피언, 모리화, 벚꽃, 위스퀴다르, 리 디아 빠임 보, 하바 나길라, 아름다운 나의 벗, 작은 세상, 아름다운 방울 소리, 생각해 줘요, 사랑의 협주곡, 노래는 즐겁다	15	45.5
	전체 곡목 수	33	100

위의 <표 10>에 나타난 제재곡 분류는 참고곡·부록 등을 제외한 곡을 대상으로 전체 제재곡 중 국악 제재곡을 각 교과서별로 분석해 보면 ‘교문’ 교과서는 전체 20곡 중 8곡, ‘교학’ 교과서는 23곡 중 7곡, ‘금성’ 교과서는 21곡 중 5곡, ‘더텍’ 교과서는 27곡 중 12곡, ‘두산’ 교과서는 18곡 중 4곡, ‘미래’ 교과서는 30곡 중 7곡, ‘박영’ 교과서는 47곡 중 14곡, ‘법문’ 교과서는 14곡 중 4곡, ‘성안’ 교과서는 19곡 중 6곡, ‘세광’ 교과서는 25곡 중 9곡, ‘지학’ 교과서는 29곡 중 10곡, ‘천재1’ 교과서는 23곡 중 6곡, ‘천재2’ 교과서는 19곡 중 8곡, ‘태림’ 교과서는 20곡 중 4곡, ‘태성’ 교과서는 25곡 중 10곡, ‘현대’ 교과서는 33곡 중 14곡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악 제재곡의 비율이 44.4%로 가장 높은 ‘더텍’ 교과서에 비해 국악 제재곡의 비율이 20%로 가장 낮은 ‘태림’ 교과서처럼 16종 교과서마다 제재곡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고, 16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곡을 한국가곡과 외국

곡을 서양악곡으로 묶어 분류했을 때, 국악 제재곡의 수가 현재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따르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국악 수록곡의 활동영역 비율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곡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교문’·‘금성’·‘더택’·‘미래’·‘박영’·‘성안’·‘세광’·‘지학’·‘현대’ 9종 교과서에서 가창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학’·‘두산’·‘법문’·‘천재1’·‘천재2’·‘태림’·‘태성’ 7종 교과서에서는 감상영역이 높게 나타나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교과서가 기악영역·창작영역 순으로 곡이 수록되어 있고 ‘태림’ 교과서만 창작영역·기악영역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표 11> 국악 수록곡의 활동영역 비율

영역	가창영역		기악영역		창작 영역		감상영역	
	곡수	비율	곡수	비율	곡수	비율	곡수	비율
교문	18	64.3	2	7.1	2	7.1	6	21.5
교학	6	33.3	2	11.1	2	11.1	8	44.5
금성	11	38	6	20.7	2	6.9	10	34.4
더택	15	50	4	13.3	3	10	8	26.7
두산	9	27.3	6	18.2	3	9.1	15	45.4
미래	13	54.2	2	8.3	2	8.3	7	29.2
박영	14	61	1	4.3	1	4.3	7	30.4
법문	4	26.7	2	13.3	2	13.3	7	46.7
성안	15	55.6	2	7.4	2	7.4	8	29.6
세광	14	45.2	3	9.7	2	6.4	12	38.7
지학	12	46.2	4	15.4	1	3.8	9	34.6
천재1	9	37.5	2	8.3	3	12.5	10	41.7
천재2	9	42.9	2	9.5	0	0	10	47.6
태림	6	31.6	2	10.5	1	5.3	10	52.6

태성	9	33.3	5	18.5	0	0	13	48.2
현대	14	41.2	7	20.5	2	11.8	9	26.5

제3절 각 제재곡에 따른 영역별 국악내용 분석

1.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음악활동의 하나이다. 특히 언어적 측면 또는 의사소통의 기능에 주목하면 노래 부르기가 매우 유용한 교육 활동이 된다. 노래가 인간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래 부르기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국악내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가곡·민요 부르기, 시조의 초창, 창작 국악 따라 부르기,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국악 가창곡의 장르 및 이해

(1)가곡 부르기

가곡은 인간 삶의 보다 복잡하고 깊이 있는 세계를 시와 노래로 표현한 악곡이다. 학생들은 가곡을 부름으로써 문학과 음악의 결합에서 오는 예술적 심미성을 경험할 수 있다. 가곡을 지도할 때에는 가사의 의미를 알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며, 바른 발성과 호흡, 풍부한 감성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2)민요 부르기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발생하여 전승된 노래로서 민중들의 사상, 생활, 감정을 담고 있다. 민요는 서민들의 공통적인 삶의 감정과 사고방식이 들어 있어 민족의 정서적 통합에 기여하며, 기본적인 국악 어법이 내재되어 있어 민요 부르기를 통해 저절로 국악의 어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한다. 또, 민족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삶의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교육적으로 의의가 크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민요 부르기 활동을 초·중등학교 모든 학년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노래하기 영역의 중심 활동이 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메나리조, 창부타령조, 육자백기조, 수심가조 등을 포함하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민요를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여러 가지 국악곡(시조, 창작 국악곡, 판소리) 듣고 따라 부르기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국악곡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으로는 시조 초창 듣고 따라 부르기,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을 제시하여 학년에 따라 위계를 두고 있다.

시조는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부르는 3장 형식의 노래로, 조선 시대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음악이다. 시조는 발성법이 자연스럽고, 3음 음계의 단순한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 성악 장르 중에서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민요와 함께 시조를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국악 가창곡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중학교 1학년 시저의 초창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익힌 시조의 발성과 가락의 흐름을 바탕으로 시김새를 이해하면서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을 하도록 한다.

창작 국악곡은 국악의 어법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을 말하며, 초등학교에서 국악의 기본적인 특성을 학습한 후 지도하도록 중학교 1학년에 제시하였다. 창작 국악곡은 국악의 음악적 특징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현대적인 음악적 감각을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악의 시대적 흐름을 알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은 국악의 음악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악곡을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을 한다.

판소리란 한사람의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소리, 아니리, 발림을 곁들여 부르는 노래이다. 판소리는 전국적으로 폭넓게 전파되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정서, 어법, 장단, 창법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악의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¹⁴⁾

나. 국악 가창영역 제재곡 분포 현황

16종 교과서 가창영역에 제시된 제재곡, 참고곡 등을 모두 합산한 국악내용은 <표 12>와 같다.

국악내용 가창곡은 총 178곡으로 민요가 116곡으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창작국악, 시조, 전래동요, 판소리·단가·타령, 가곡·타령·고려가요 순으로 제시되었다.

가곡은 '금성' 교과서에서만 더 나아가기 부분에 가곡 초수대엽 부르기가 나왔고, 시조는 16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 되었으며, 판소리는 '지학' 교과서에선 가창영

14)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0)』 (2009) pp.145-46.

역으로 제시되었고, '현대' 출판사는 가창·감상영역으로 제시되었으며, '교학'·'금성'·'더텍'·'두산'·'박영'·'법문'·'성안'·'세광'·'천재1'·'태림'·'태성' 교과서는 감상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단가는 '지학' 교과서의 한 걸음 더에 가창영역으로 제시되었고, '태성' 교과서는 가창·감상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전래동요는 '금성'·'태성' 교과서는 참고곡으로 우리나라의 전래 자장가 부분에 가창영역으로 제시되었고, '세광' 교과서는 가창·기악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취타는 '더텍' 교과서에서 전통음악 취타 중에서 가사를 붙여 임금님의 행차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었다.

타령은 '더텍' 교과서에서 현악 영상회상 중에서 타령 가락에 가사를 붙인 곡으로 가창·기악영역으로 제시되었다.

고려속요는 '천재2' 교과서에서 방아를 쥘으면서 부르는 일노래 상저가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었다.

창작국악은 '태림' 교과서만 제외하고 15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 되었다. '태림' 교과서에서 창작국악은 감상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국악의 다양한 종류들이 가창영역으로만 분류되지 않고 기악·감상영역으로 다양하게 제시됨을 알 수 있다.

<표 12> 가창곡 장르별 분류

가창장르	민요	가곡	시조	판소리	단가	전래동요	취타	타령	고려속요	창작국악	합계
출판사											
교문	14		1							3	18
교학	4		1							1	6
금성	6	1	1			1				2	11
더텍	8		1				1	1		4	15
두산	5		1							3	9
미래	10		1							2	13
박영	11		1							2	14
법문	2		1							1	4
성안	12		1							2	15
세광	6		1			4		1		2	14
지학	7		1	1	1					2	12

천재1	5		1						3	9	
천재2	6		1					1	1	9	
대립	5		1							6	
대성	4		1		1	1			2	9	
현대	11		1	1					1	14	
합계	116	1	16	2	2	6	1	2	1	31	178

(1)민요

우리 민족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노래를 불렀다. 들이나 밭에 나가 일할 때, 추수가 끝나 한바탕 놀 때 예도 민요는 흥을 돋구어 주는 신명의 축매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슬픔이나 고통을 이겨내려고 부르는 민요는 한의 정화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 노래에는 민중의 소리가 담겨있고, 민족공통의 생활감정이나 풍습, 그리고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심성이나 소망 따위가 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

언제 누구의 손에 작사되고 또 작곡되었는지도, 모르고 엄격한 규범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이나 부르는 사람에 따라 또는 같은 사람이 부르더라도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요컨대 민요는 오랜 세월 동안 구비전승된 소박한 음악으로 한국인의 음악적 자질과 정서를 보여주기엔 충분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¹⁵⁾

우리 민요는 각 지방마다 고유한 사투리가 존재하듯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한 특징끼리 묶어 5개의 민요권으로 분류한다. 민요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경기민요(서울·경기·충청도 일부), 서도민요(평안도·황해도), 남도민요(전라도·충청도 일부), 동부민요(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의 강원도·함경도·경상도), 제주민요로 나누어진다.

<표 13> 지역에 따른 음악적 분류

영역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기타	합계
교문	1	1	4	7					1		14
교학	1	1	1						1		4
금성		1	1	1	1				2		6
더택	1	2		3	1				1		8

15) 한국문화예술킨흥원, 『2010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악분야 상반기 연수 교과·재량』(2010) p.131.

두산		2	1	1	1						5
미래	2	1	2	2	1		1		1		10
박영	1	5	1	2	1				1		11
법문			1	1							2
성안	3	2	1	1	3		1		1		12
세광		1	1	2	1				1		6
지학		1	1	4	1						7
천재 1		1	1	1	1				1		5
천재 2		1	2	1	1				1		6
태림			2	1	1				1		5
태성			2	1						1	4
현대		5	2	1	1			1		1	11
합계	9	24	23	29	14	0	2	1	12	2	116

<표 13>에서는 16종 교과서의 지역별 민요 분포 현황을 볼 수 있다.

16종 교과서의 전체 민요곡의 수는 116곡이며 그 중 강원도 민요는 9곡, 경기도 민요는 24곡, 경상도 민요는 23곡, 전라도 민요는 29곡, 제주도 민요는 14곡, 충청도 민요는 한곡도 제시되지 않았고, 평안도 민요는 2곡, 함경도 민요는 1곡, 황해도 민요는 12곡 기타 민요곡 2곡으로 수록되어져 있다.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교문' 교과서는 강원도 1곡, 경기도 1곡, 경상도 4곡, 전라도 7곡, 황해도 1곡으로 총 14곡이다. '교문' 교과서는 16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은 민요곡을 수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민요는 수록되지 않고 전라도 민요와 경기도 민요에 편중되었다.

'교학' 교과서는 강원도 1곡, 경기도 1곡, 경상도 1곡, 황해도 1곡으로 총 4곡의 민요를 수록하고 있고, '금성' 교과서는 강원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민요를 제외하고 총 6곡을 수록하고 있고, '더택' 교과서는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민요를 제외하고 총 8곡, '두산' 교과서는 경기도 2곡, 경상도 1곡, 전라도 1곡, 제주도 1곡 총 5곡, '미래' 교과서는 강원도 2곡, 경기도 1곡, 경상도 2곡, 전라도 2곡, 제주도 1곡, 평안도 1곡, 황해도 민요 1곡으로 총 10곡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박영' 교과서는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민요를 제외하고 총 11곡을 수록하고, '법문' 교과서는 경상도 1곡, 전라도 민요 1곡, 총 2곡으로 16종 교과서 민요 중 가장 적게 수록하였고, '성안' 교과서는 충청도, 함경도 민요를 제외하고 총 12곡을 다양하게 수록하였고, '세광' 교과서는 경기도 1곡, 경상도 1곡, 전라도 2곡, 제주도 1곡, 황해도 민요 1곡, 총 6곡을 수록하였고, '지학' 교과서는 강원도, 충청도, 평안

도, 함경도 민요를 제외하고 총 7곡을 수록하였는데 전라도 민요만 4곡이다. '천재 1' 교과서는 경기도 1곡, 경상도 1곡, 전라도 1곡, 제주도 1곡, 황해도 1곡 총 5곡, '천재2' 교과서는 경기도 1곡, 경상도 2곡, 전라도 1곡, 제주도 1곡, 황해도 민요 1곡 총 6곡, '태림' 교과서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민요를 제외하고 총 5곡, '태성' 교과서는 경상도 1곡, 전라도 1곡, 그리운 강남·도라지·아리랑을 한 악보에 제시한 겹침 노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기타 악곡 1곡을 포함하여 총 4곡, '현대' 교과서는 강원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민요를 제외하고 총 11곡을 수록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는 비교적 다양한 민요를 싣고 있지만, 충청도·황해도·평안도 민요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고, 경기도·경상도·전라도 민요에 편중되어 있어 민요의 지역별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민요는 지방마다 서로 다른 음악어법을 갖고 있다. 이를 순수 한글로 토리라고 하며 다른 말로 제라고도 한다. 즉 토리란 한지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음악적 성향, 특징을 통칭하는 말이다. 민요를 구성하고 있는 음과 그들의 기능, 음이 움직이는 방식, 발성법, 장식음, 사용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악어법을 일컫는다.

경기민요(경토리)는 서울·경기·충청도 일부지방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으로 맑고 경쾌하며 음빛깔이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남도민요(육자배기 토리)는 전라도·충청도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으로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을 주로 사용하며 대체적으로 굽게 떨어주어 경기·서도민요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동부민요(메나리 토리)는 태백산맥 동쪽으로 관동팔경을 포함한 우리나라 동쪽지역에 불리워지고 있는 민요들로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지역에 음악적 특징들이 나타난다. 경상도 지역의 민요는 빠른 장단에 경쾌한 반면 강원도·함경도는 애탄조, 탄식조가 많아 같은 동부민요라 해도 노래의 느낌이 다르다.

서도민요(수심가 토리)는 황해도·평안도 일대의 음악적 특징으로 북쪽의 사투리가 물씬 풍겨 나오는 구수하고 담백한 느낌의 노래이다. 경기민요가 분산된 음들을 하나로 모아 조여 내는 발성법이라면 서도민요는 음들을 하나하나 넓게 펼쳐나가는 음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제주민요는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민요들과 육지의 영향을 받은 민요들이 공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도민요와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무 소리꾼들의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에 통속민요¹⁷⁾ 보다는 토속민요¹⁸⁾가 더 많이 발달해

16) 상계서 p132-133

온 것으로 여겨진다.¹⁹⁾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민요를 토리별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토리에 따른 음악적 분류

영역	경기	남도	동부	서도	제주도	기타	합계
교문	1	7	5	1			14
교학	1		2	1			4
금성	1	1	1	2	1		6
더덕	2	3	1	1	1		8
두산	2	1	1		1		5
미래	1	2	4	2	1		10
박영	5	2	2	1	1		11
법문		1	1				2
성안	2	1	4	2	3		12
세광	1	2	1	1	1		6
지학	1	4	1		1		7
천재1	1	1	1	1	1		5
천재2	1	1	2	1	1		6
태립		1	2	1	1		5
태성		1	2			1	4
현대	5	1	3		1	1	11
합계	24	29	33	14	14	2	116

<표 14>를 살펴보면 동부민요가 33곡, 남도민요가 29곡, 경기민요가 24곡, 서도·제주민요가 14곡, 기타 2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토리별 분류에서도 동부·남도·경기민요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반면 서도·제주민요의 비중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별로는 '금성'·'더덕'·'미래'·'박영'·'성안'·'세광'·'천재1'·'천재2' 교과서는 토리별로 골고루 수록하고 있고, '교문' 교과서는 제주민요를 뺀 민요, '교학'

17) 한민족 공동체에 널리 퍼진 노래로 토속민요처럼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음악적으로는 토속민요보다 규칙적인 느낌의 세련된 맛을 갖고 있으며 교과서의 보급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18) 한 지역에 한정된 보편성을 가진 노래로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불리워진 노래로 사실이나 가락이 비교적 소박하고 단순하다. 토속민요처럼 세련된 맛은 적으나 그 지역 고유의 삶과 정서를 함축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19) 김정은, “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 내용 분석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7.

교과서는 남도·제주민요를 뺀 민요, '두산' 교과서는 서도민요를 뺀 민요, '법문' 교과서는 경기·서도·제주민요를 뺀 민요, '지학' 교과서는 서도민요를 빼 민요, '태림' 교과서는 경기민요를 뺀 민요, '태성' 교과서는 경기·서도·제주를 뺀 민요, '현대' 교과서는 서도민요를 뺀 민요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별 민요의 편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각 고장별 특유의 가락과 리듬, 시김새를 통한 맛과 멋을 학생들이 느낄 수 없게 되므로 좀 더 다양한 지방의 민요를 교과서에서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재곡 선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2)시조 및 가곡

시조(時調)는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노래하는 음악이다. 시조창(時調唱) 또는 시절가(時節歌)라고도 부른다.

시조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시대에 따라 음악적으로 발전하여 서울과 지방에 따라 장단이 달라지고 부르는 창법도 변화를 하게 되었다.(경제의 평시조, 중허리시조, 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수잡가, 여창지름시조, 우조시조, 우조지름시조, 향제의 사설시조, 엇시조, 반사설시조 등)

지역별 시조의 음악적 형태를 살펴보면, 시조창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한 형태를 경제(京制)라 하고,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을 내포제(內浦制),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완제(完制), 경상도는 영제(嶺制)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곡은 오랜 역사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전문가의 노래이다.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시조시를 엮어 부르는 노래로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이라고도 한다.

가곡의 음악적 구성은 5장 형식으로 전주(前奏)나 후주(後奏)에 해당하는 대여음(大餘音)과 간주(間奏)에 해당하는 중여음(中餘音)이 3장과 4장 사이에 있다. 반주 악기의 편성은 대금, 세피리, 해금, 거문고, 가야금, 장구 등으로 이루어지며, 양금이나 단소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가곡은 남창과 여창이 있으며, 남녀창으로 함께 부를 때에는 교대로 번갈아가며 부르다가 마지막 곡인 태평가는 함께 병창하는 방식으로 연주한다.²⁰⁾

20) 문재숙, 『이해하면 사랑하는 韓國音樂』 (서울: 민속원, 2009) pp.198-20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9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악분야 하반기 강사연수』 (2009) p.98.

<표 15>시조 및 가곡 수록 현황

출판사 제재곡의 분류	시조 및 가곡
교문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신혜영 채보
교학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시
금성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시 가곡 “초수대엽”
더텍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고춘선 채보
두산	시조 “태산이”-양사언 시
미래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박영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법문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작사 · 이주황 편 · 허화병 편 보
성안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세광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작사 · 허화병 편보
지학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시
천재1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작사
천재2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양사언 시조
태림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작시
태성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현대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작사

시조와 가곡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시조와 가곡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는 '금성' 교과서뿐이다. 16종 교과서 모두 시조는 수록되어 있지만 가곡은 감상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3) 판소리 · 창극 · 단가

판소리는 소리 하는 사람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1인 음악극이라 할 수 있다. 창자가 소리, 아니리, 발림을 하는데,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을 ‘소리’라고 하곡, 말로 대사를 읊어 나가는 것을 ‘아니리’라고 하며, 소리를 하면서 하는 갖가지 몸짓을 ‘발림’이라고 한다.

판소리의 선법으로는 크게 우조, 평조, 계면조, 등이 있다. 우조(羽調)는 씩씩하고 위엄 있는 느낌을 주고 평조(平調)는 화평정대(和平正大)한 느낌, 그리고 계면조(界

面調)는 남도민요의 음계인 즉,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으로 이루어지며 슬픈 느낌을 준다.

판소리에 주로 쓰이는 장단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엇모리·엇중모리 등이 있고 이들은 장단이 약간 느리고 빠른 차이에 따라 여러 변형이 있다.

판소리는 지역이나 그 음악적 특징에 따라 <제>로 구분되는데,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 중고제로 나뉜다.

판소리는 본래 12바탕 이었으며, 그것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배비장전, 용고집전, 변강쇠 타령, 장끼 타령, 강릉매화전, 무숙이 타령, 가짜 신선 타령이다. 이 중 오늘날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5마당만 전해진다.

이와 같은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²¹⁾

창극은 말 그대로 창으로 엮어가는 연극이라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창극은 19세기 까지 전해오는 판소리가 20세기 이후 서양의 연극의 형태를 빌어서 무대화 된 장르이다. 그러므로 판소리가 한사람이 구연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면 창극은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이라는 점이 다르다. 판소리에 아니리가 있듯이 창극에는 대사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창극이 서양의 오페라 보다는 뮤지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²²⁾

단가는 판소리 부르기 전에 관중들의 흥과 기대감을 돋우고, 창자의 목청을 가다듬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노래이다. 판소리 발생 이전에는 가사나 별곡과 같은 긴 노래(장가)에 대비되는 말로 초중총장형식의 짧은 노래를 시절단가(시조)라고도 했으나, 19세기 이후에는 시조를 단가라고 하지 않는다. 19세기 까지는 단가에 해당하는 말로, 영산, 허두가 등의 용어가 쓰였으나, 요즘은 단가라 하면 판소리 전에 부르는 짧은 서정노래를 가리킨다.²³⁾

21) 문재숙, 『이해하면 사랑하는 韓國音樂』 (서울: 민속원, 2009) p.208. p.210.

22) 김해수 외 2인, 『전통 음악 개론』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7) p.184.

23) 상계서 p.186.

<표 16> 판소리 · 창극 · 단가 수록 현황

제재곡의 분류 출판사	판소리 · 창극 · 단가 수록곡
교문	
교학	감상-판소리 심청가 중 어화동동 내 딸
금성	감상-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 감상-단가 진국명산 ²⁴⁾
더택	감상-판소리 흥보가 중 심술타령 감상-창극 심청전
두산	감상-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감상-창극 심청전 감상-단가 진국명산
미래	
박영	감상-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감상-단가 진국명산
법문	감상-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성안	감상-판소리 춘향가
세광	감상-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 감상-창극 심청가 중 뱃노래 감상-단가 만고강산 ²⁵⁾
지학	가창-판소리 흥보가 중 비단타령 -박송희 창, 강세연 채보 단가 진국명산
천재1	감상-판소리 심청가 중 아버지와 이별하는 대목
천재2	감상-판소리 흥보가 창극-흥보가
태림	감상-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 암행어사 출두 감상-창극 춘향가

대성	감상-판소리 홍보가 중 화초장 대목 감상-창극 홍보가 박타는 대목 감상-단가 사철가 ²⁶⁾
현대	가창-판소리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 감상-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

교과서별 학습목표에 중점을 두어 판소리와 창극과 단가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가창영역과 감상영역으로 나누어 다음의 <표 16>과 같다.

‘지학’ 교과서에서는 판소리 홍보가와 단가 진국명산이 가창영역으로 수록되었고, ‘현대’ 교과서에서는 판소리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가 가창영역으로 제시되었다.

‘교학’ 교과서는 판소리만 감상 영역으로 수록되었고 ‘금성’ 교과서는 판소리와 단가가 감상영역으로 수록 되었다. ‘더텍’ 교과서는 판소리와 창극이 감상영역으로 수록되었고 ‘두산’ 교과서는 판소리, 창극, 단가가 모두 감상영역으로 수록되었다. ‘박영’ 교과서는 판소리와 단가가 감상영역으로 수록되고, ‘법문’ 교과서는 판소리가 감상영역으로 수록되었다. ‘성안’ 교과서는 판소리가 감상영역으로 수록되고 ‘세광’ 교과서는 판소리와 창극 단가가 모두 감상영역으로 수록되었다. ‘천재1’ 교과서는 판소리가 감상영역으로 수록되고 ‘천재2’ 교과서는 판소리와 창극이 감상영역으로 수록되었다. ‘태림’ 교과서는 판소리와 창극이 감상영역으로 수록되고 ‘태성’ 교과서는 판소리, 창극, 단가 모두 감상영역으로 수록되었다. ‘현대’ 교과서는 가창 영역에 이어 감상영역으로도 판소리가 수록되었다.

판소리 5바탕 중 춘향가 7종, 홍보가 6종, 심청가 3종, 수궁가 1종, 적벽가 1종의 교과서에서 수록되고 ‘박영’ 교과서만 5바탕의 판소리가 다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극에서는 심청가가 3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홍보가는 2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춘향가는 1종의 교과서에서만 제시되었다. 단가는 4종의 교과서에서 진국명산이 수록되고 1종의 교과서는 만고강산 또 1종의 교과서는 사철가가 수록 되었다.

판소리·창극·단가는 가창영역보다는 감상영역에 더욱 비중을 두어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교문’·‘미래’ 교과서는 가창·감상 영역에서 판소리, 창극, 단가의 수록곡을 찾

24) 경복궁의 대궐 터를 묘사하면서 임금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노래로 일제 때는 금지곡이었던 노래이다.

25)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산천경계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 중국의 삼신산에 비유되고 있다.

26) 20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단가로 내용은 편시춘과 비슷하나 계면길로 짜여진 것이 특징이다.

아 볼 수 없었다.

(4) 창작노래 및 기타 악곡

창작노래는 민요나 정악 기악곡 등의 전통 국악곡의 음악 특성을 새로운 악곡의 형식으로 표현한 곡이어야 한다.

창작노래에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핵심적인 내용을 장단의 특징, 전통음조직, 구조, 가사와 리듬과의 관계가 적절성이 담겨있어야 하며 가사가 중학교 수준에서 올바른 정서를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²⁷⁾

아래 <표 17>은 창작노래 및 기타 악곡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황이다.

<표 17> 창작노래 및 기타악곡 수록 현황

제제곡의 분류	창작노래	기타 악곡
출판사		
교문	오나라-임세현 작사·작곡 만선-황의중 작곡	
교학	농악-김수경 작곡, 신순애 작사	
금성	어디로 같이거나-김영동 작곡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자장가
더텍	봄-윤석중 작사, 이성복 작곡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우리 장단 배워보자-전지인 작사·작곡 농악-신순애 작사, 김수경 작곡	임금님의 행차-권오성 작사타령-권오성 시
두산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다름이-송명호 작사, 김진숙 작곡 해-김희정 작사, 김성지 작곡	
미래	우리 장단 배워보자-전지인 작사·작곡	

27) 문진, 『고등학교 국악가창 교육 -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가창편』 (서울: 국립국악원 국악 연구실, 2001) p.23.

	구구단-오갑순 작곡	
박영	우리 장단 배워보자-전지인 작사·작곡 홀로 아리랑-한돌 작사·작곡	
법문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성안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방울 카드-황대익 작사, 이병욱 작곡	
세광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아름다운 나라-채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	타령-권오성 작사, 김용진 편곡 청어엮자, 대문놀이, 고사리 꺾자, 남생아 놀아라
지학사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홀로 아리랑-한돌 작사·작곡	
천재1	산도깨비-조광재 작사·작곡 남누리 북누리-백창우 작사·작곡 어디로 갈꺼냐-김영동 작사·작곡	
천재2	국화 옆에서-서정주 시, 황병기 작곡	
태림		
태성	장단 노래-홍진표 작사·작곡 가시버시 사랑-금나영 작사, 이병욱 작곡	자장가, 곁침노래-홍진표 편곡
현대	신나게 북 쳐보자-장시본 작사, 오상문 작곡	

창작노래는 1곡에서 많게는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태림’ 교과서는 창작노래가 한곡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기타 악곡으로 ‘금성’ 교과서에서 전래동요가 수록되고, ‘더텍’ 교과서는 취타와, 정악곡 현악 영산회상의 곡이 수록되었고, ‘세광’ 교과서는 현악영산회상과 전래동요가 수록되었고, ‘태성’ 교과서는 전래동요와 여러 민요를 한곡으로 제시한 곁침노래를 수록하였다.

활동영역의 노래 부르기 학습 요소에서 국악 가창곡으로 수록된 총 178곡 중에서 민요는 116곡, 창작국악 31곡, 가곡 16곡, 전래동요 6곡, 판소리·단가·타령

2곡씩, 가곡·취타·고려속요 1곡씩 10개의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수록되었지만 그 비율은 현저한 차이로 균형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가창곡 중에서도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민요가 가장 많은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가장 중요시 하며 가장 쉽게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또한 창작 국악곡은 다소 기피할 수 있는 국악이란 장르를 새롭게 창작된 음악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악기 연주하기

연주하기는 가창이나 감상 등 다른 활동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음악적 표현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로 악기를 정의하게 되면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악 학습의 범위는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기악 학습을 위해 반드시 전문적인 악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연주하기는 초등학교에서 익힌 악기들의 기본적인 연주 능력을 바탕으로 심화된 악기 주법을 익히고, 악곡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악곡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연주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에서 연주하기는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가락 악기 연주하기, 합주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국악 기악연주의 이해

(1)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바른 주법이란, 기악에 있어서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 음악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능의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악기를 학습할 때에는 악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체 전 부분이 관여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악기 연주는 손가락이나 팔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손가락이나 팔의 움직임만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다. 손가락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팔이 이완되어야 하며, 팔이 이완되기 위해서는 상체가 전체적으로 이완되어 있어야 하고, 상체가 이완되기 위해서는 하체가 이완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의 신체는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기의 연주 기능을 가르칠 때에도 신체 전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주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악기 연주 기능의 습득을 위한 학습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연주 기능의 습득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익힌 연주 기능을 바탕으로 중학교에서는 내면의 음악성을 악기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2) 가락 악기 연주하기

악기 연주 학습에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한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느끼고 탐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매우 큰 음악적 동기와 감동을 부여한다.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별 악기를 위한 학습에서는 악기의 고유한 특성과 음색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면의 음악적 의도가 독창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합주는 음악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악기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에서는 연주 기능을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악기를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3) 합주하기

합주는 독주와는 달리 자신의 파트를 독자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파트나 악기의 소리를 듣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활동으로, 음악적 독립성을 키워 줄 뿐 아니라, 각 악기의 어울림을 통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합주를 지도할 때에는 각 파트 간의 어울림, 또는 소리들이 잘 섞여서 하나의 통일된 음악을 만드는 연습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합주 가운데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리코더나 단소 등의 동일한 악기를 여러 파트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합주, 여러 가지 다양한 가락 악기 및 리듬 악기들을 필요로 하는 합주, 다양한 종류의 가락 악기들을 활용한 합주, 다양한 종류의 리듬 악기들을 활용한 합주, 전자 악기들을 활용한 합주 등 다양한 편성의 합주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다.²⁸⁾

28)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0)』 (2009) pp.147-49.

나. 국악 기악영역 제재곡 분포 현황

국악내용의 악기는 장구, 단소, 소금, 사물놀이, 풍물놀이 총 5개로 단소, 사물놀이, 장구, 소금, 풍물놀이 순으로 제시되었다.

단소는 16종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었고, 사물놀이는 ‘박영’·‘성안’·‘태림’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장구는 ‘두산’·‘박영’·‘천재1’·‘천재2’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소금은 ‘교문’·‘금성’·‘두산’·‘천재1’ 교과서에서만 제시되었고, 풍물놀이는 ‘법문’ 교과서에 서만 제시되었다.

이처럼 연주하기 내용에서는 관악기 단소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타악기 사물놀이를 다음으로 많이 제시함을 알 수 있지만 현악기는 단 한곳의 교과서도 제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악기는 학교 자체에 악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다루어 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타악기 위주의 내용 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관·현·타악기를 각각 하나 정도는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주하기 내용이 아닌 이론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악기 부분은 <표 17>에서 제외시켰다.

<표 18>기악영역-악기별 분류

출판사 \ 악기	장구	단소	소금	사물놀이	풍물놀이
교문	●	●	●	●	
교학	●	●		●	
금성	●	●	●	●	
더텍	●	●		●	
두산		●	●	●	
미래	●	●		●	
박영		●			
법문	●	●		●	●
성안	●	●			
세광	●	●		●	
지학	●	●		●	
천재1		●	●	●	

천재2		●		●	
태림	●	●			
태성	●	●		●	
현대	●	●		●	

(1) 장구

장고 또는 장구라 불리며 허리가 가늘어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한다. 장구의 왼편은 북편이라 부르며 손바닥으로 쳐서 소리를 내고, 오른편은 채편이라 부르며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대개 대편성인 합주나 무용 반주에 쓰일 때는 채편의 북판을 치고, 독주나 줄풍류, 또는 가곡 등 노래 반주 시에는 변죽을 친다. 현재 궁중 음악을 비롯하여 민요, 산조, 의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단소

단소는 짧은 부는 악기라는 뜻으로 지공이 뒤에 1개, 앞에 4개가 있으나 보통 5공은 사용하지 않고 4개의 구멍만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독주는 물론 현악 중심의 줄풍류나 가곡 반주, 양금이나 생활과의 병주 등에 쓰인다.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배우기가 쉬워 널리 사용되는 악기이다.

(3) 소금

신라 3죽 중 가장 작은 악기로 대금과 비슷하다. 소금은 취공 1개, 지공 7개가 있으며, 악기가 가늘고 짧아 한국 악기 중 높은 음역으로 향악, 당악 합주시 사용되며 고음의 가락을 깨끗하고 맑게 처리해준다.

(4) 사물놀이

꽝과리, 징, 장구, 북 등의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앉아서 연주하는 음악으로서 그 가락은 풍물놀이 가락에서 취한 것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다. 전통적인 풍물놀이가 선반으로 연주하며 여러 발림으로 병행하는 것에 반해, 사물놀이는 무대 공연에 맞도록 앉아서 연주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5) 풍물놀이

풍물놀이는 주로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무용과 놀이를 행하는 음악이다. 마을의 제사가 있을 때, 농사일을 할 때, 또는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 등을 위하여 연주하였다.²⁹⁾

29) 문재숙, 『이해하면 사랑하는 韓國音樂』 (서울: 민속원, 2009) p.60. p.68. p220. p222.

<표 19> 기악영역 - 내용 분류

출판사	분류	기악영역의 내용 분류
	교문	1.장구연주 방법과 기본·변형장단 2.단소 연주 방법과 운지법 3.사물놀이 연주 방법
	교학	1.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2.단소 운지법 3.뽕과리 구조와 주법 4.사물놀이 합주 5.소금 연주 방법과 운지법
	금성	1.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2.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3.소금연주 방법과 운지법 4.사물놀이 합주
	더텍	1.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2.사물놀이 합주 3.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두산	1.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2.사물놀이 합주
	미래	1.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2.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3.사물놀이 합주
	박영	1.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법문	1.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2.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3.풍물놀이와 사물놀이 연주 방법
	성안	1.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2.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세광	1.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2.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3.사물놀이 연주 방법과 합주
	지학	1.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2.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3.사물놀이 연주 방법과 합주
천재1	1.단소 연주법 2.소금 연주법
천재2	1.사물놀이 연주 방법과 합주 2.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태림	1.장구 연주 방법 2.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태성	1.장구구조와 연주 방법 2.사물놀이 연주법 3.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현대	1.장구 연주 방법 2.단소연주 방법과 운지법 3.사물놀이 합주

각 교과서마다 수록하고 있는 악기연주는 <표 19>와 같다. 교과서별로 악기 연주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문’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장구 설명, 장구의 연주 방법, 장구의 명칭, 장단의 부호,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으로 이루어졌다. 단소의 구성 내용은 단소의 연주 방법과 운지법, 단소 부는 모습과 소리가 나지 않을 때의 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왔다.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연주법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교학’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장구의 구조, 장구 주법, 장구의 연주 방법까지 세밀하게 제시되고 장단의 개념까지 수록되었고 단소의 구성 내용은 운지법과 정간보에 연습곡을 수록하였지만 부는 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제시되었고, 팽과리의 구성 내용은 팽과리의 구조와 주법을 제시하였다. 사물놀이 안에 팽과리 내용을 제시하는데 반해 ‘교학’ 교과서는 따로 제시하였다.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합주 악보만 제시하여 놓고 4가지의 악기의 연주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소금의 구성 내용은 연주방법, 운지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부는 입모양, 연주 자세까지 사진으로 첨부하고, 단계별 연습악보와 제재곡을 정간보로 수록하여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금성’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사물장구와 정악장구의 연주방법의 차이를 사진으로 제시하고 장구 구조, 장구 주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장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소의 구성 내용은 연주방법을 설명하고 운지법과 연주자세를 사진으로 제시하였고, 정간보에 연습곡과 제재곡을 수록하였다. 소금의 구성 내용은 자세와 운지법, 연주방법, 정간보에 연습곡과 제재곡을 수록하였다.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연주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제재곡만 수록되어 있었다.

‘더택’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구조, 연주법, 자세, 만드는 방법과 기본장단과 변형장단을 정간보와 서양 악보 모두 제시하였다. 사물놀이의 구성 내용은 합주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단소의 구성 내용은 연주자세와 운지법 제재곡을 수록하였다.

‘두산’ 교과서의 단소 구성 내용은 운지법과 연주 자세를 설명없이 사진으로만 제시하고 제재곡을 장단에 맞추어 연주하도록 제시하였다.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사진으로 연주 모습을 제시하고 부호와 구음을 정간보에 제시하여 합주하도록 제시하였다.

‘미래’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자세와 채의 종류, 구조, 부호, 연주 방법을 제시하고 장단은 서양 악보에 제시하고 정간보 없이 구음으로 표기하였다. 단소의 구성 내용은 연주 자세와 운지법을 설명하고 정간보에 제재곡을 제시하였다.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각 악기의 구음만을 제시하여 연주 방법과 악기에 대한 설명 없이 구음 사물놀이와 사물놀이 합주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박영’ 교과서의 단소 구성 내용은 운지법과 연주 자세를 설명하고 연습곡을 서양 악보와 정간보 모두 제시하고 제재곡을 정간보로 제시하여 단소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문’ 교과서의 단소 구성 내용은 단소의 특징, 연주 방법, 제재곡을 수록하여 연주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운지법은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장구의 구성 내용은 구조와 연주 방법,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으로 제시하고,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구성 내용은 특징을 설명하고 연주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악기를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제시하였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성안’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구조와 연주법이 제시되고, 단소의 구성 내용은 연주 자세와 호흡법, 운지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세광’ 교과서는 연주방법, 운지법, 제재곡을 제시하여 연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구의 구성 내용은 구조와 연주방법을 설명하였다.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악기 연주법을 제시하고 합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학’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구조와 연주 자세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장구 연주법을 다각도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제시하였는데 정간보에 연주 표기법으로만 제시하여 학생들이 악보를 읽히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단소 구성 내용은 연습곡과 제재곡을 제시하였다. 연주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운지법은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소리 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악기 연주법이 사진으로만 제시되고 짧은 가락을 제시하여 합주하도록 하였다. 악기 연주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시된

가락도 너무 짧아 합주하기에 부적절하다.

‘천재1’ 교과서의 단소·소금 구성 내용은 연주 방법과 연습곡, 제재곡을 제시하였다. 운지법은 교과서 맨 뒷 페이지 학습 정리에 제시하여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 사물놀이의 구성 내용은 짧은 가락악보만 제시하여 놓았다. 구성 악기의 사진이나 그림 한 장 제시하지 않았다.

‘천재2’ 교과서의 사물놀이 구성 내용은 각각의 연주 방법과 짧지만 다양한 가락은 제시하였다.

가락은 모두 서양 악보로만 제시되고 정간보나 구음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소의 구성 내용은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제시하고 제재곡을 제시하였다.

‘태림’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연주법과 채의 설명은 잘 되었으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 단소의 구성 내용은 운지법과 제재곡만 제시하여 미흡하였다.

‘태성’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구조와 연주법 많이 쓰이는 장단을 제시하였다. 사물놀이의 구성 내용은 연주 방법만 제시하였다. 단소의 구성 내용은 연주 자세와 호흡법, 운지법을 설명하고 제재곡을 제시하였다.

‘현대’ 교과서의 장구 구성 내용은 구조와 바른 자세 구음 및 연주법을 제시하였고, 단소의 구성 내용은 운지법만 설명하고 연주 방법은 설명 없이 사진으로만 제시하였다. 단계별로 악보를 제시하였다. 사물놀이의 구성 내용은 연주방법 없이 서양 악보에 구음을 적은 가락들로 합주하도록 제시하였다.

이처럼 각 교과서별로 악기 연주하기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단소·소금과 같이 관악기 연주법은 부는 자세와 호흡법을 설명하여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운지법은 체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하고, 제재곡은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장구의 연주법은 구조와 연주방법과 표기법, 구음 등을 모두 제시하고 장구를 치는 모습까지 다각도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사물놀이의 타악기 연주법은 더욱더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론적인 면으로 나온 교과서도 있고 감상영역으로 제시된 교과서도 있지만 한 가지 영역으로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연주하기 또는 합주하기라는 학습목표가 있기 때문에 악보만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합주할 수 있도록 연주방법과 구음을 좀 더 보충하여야 한다. 사물놀이는 학생들이 배우기도 용이하고 우리음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3. 음악 만들기

창작 활동은 음악을 만드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음악적 상상력과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달시켜 주시 위해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중학교에서 창작 활동은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다양한 형식의 가락 짓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국악 창작영역의 이해

(1)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악보 없이 음악적 아이디어를 직접 음악적인 수단(노래, 기악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처음 단계에서는 매우 단순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즉흥적인 표현을 시작하게 되지만, 이 수업이 거듭될수록 즉흥적인 표현을 통해 나오는 소리에서 음악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음악적 의미를 알게 될 때 즉흥적인 표현에서 나타나는 예술적인 구조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길이의 음악을 노래나 악기 등으로 즉흥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즉흥 표현을 위해 주어지는 조건에는 리듬, 가락, 음색, 형식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또, 개인별로 하는 즉흥 창작은 물론, 모둠으로 하는 즉흥 표현도 가능하다.

(2) 간단한 형식과 다양한 형식의 가락 짓기

가락은 높낮이가 서로 다른 음들의 연속적인 흐름이다. 가락의 요소에는 음의 높낮이, 음의 진행 방향, 가락꼴, 조성 등의 세부 요소들이 관계한다. 학생들은 가락 짓기 활동을 통해 음악적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는 다양한 시청각 기기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음악을 조합하는 것이다. 즉, 소리 매체, 영상 매체, 소리와 영상 매체를 다루는 기기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에 따라 기존의 음악들을 재구성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이야기나 장면 등의 조건을 주고, 이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선곡하도록 한 후, 이들을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별, 모둠별,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음악적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디지털 매체는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이루어진 매체를 의미하며, 미디(MIDI), 엠프3(MP3), 웨이브(wave), 동영상(digital movie) 등의 매체를 포함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컴퓨터나 기타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여 음악을 창작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존의 음악들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³⁰⁾

나. 국악 창작영역의 내용

현재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의 창작영역의 내용을 <표 19>와 같이 분류하였다.

창작영역은 5개의 활동영역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박영’·‘성안’·‘지학’·‘태림’ 교과서에서는 창작내용의 요소가 단 하나에 그치고 있고, ‘천재2’·‘태성’ 교과서에서는 창작내용의 요소가 없었다.

<표 20> 창작영역 수록 현황

영역 출판사	가사 짓기	가락 짓기	변형장 단 만들기	즉흥연 주	춤동작 만들기	노래 만들기	가면극 만들기
교문	●	●					
교학	●	●					
금성		●	●				
더텍	●		●				
두산	●	●	●	●			
미래	●	●					
박영	●						

30)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0)』 (2009) pp.149-51.

법문	●	●	●		●		
성안		●					
세광		●	●				
지학		●					
천재1	●	●			●		
천재2							
태림			●				
태성							
현대	●	●	●			●	●

창작영역은 14종의 교과서만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 교과서는 가사 짓기만, ‘성안’·‘지학’ 교과서는 가락 짓기만, ‘태림’ 교과서는 변형장단 만들기만 수록하고 있다. ‘교문’·‘교학’·‘미래’ 교과서는 가사 짓기와 가락 짓기만 수록되어 있고, ‘금성’·‘세광’ 교과서는 가락 짓기와 변형 장단 만들기만 수록되었다. ‘더텍’ 교과서는 가사 짓기와 변형장단 만들기만 수록하고 있고, ‘천재1’ 교과서는 가사 짓기, 가락 짓기, 춤동작 만들기를 수록하고 있다. ‘두산’·‘법문’·‘현대’ 교과서는 가사 짓기, 가락 짓기, 변형장단 만들기를 수록하고 ‘두산’ 교과서는 즉흥 연주하기, ‘법문’ 교과서는 춤동작 만들기, ‘현대’ 교과서는 노래 만들기과 가면극 만들기를 포함하고 있다.

가락 짓기는 총 11종의 교과서에, 가사 짓기는 총 9종의 교과서에, 변형장단 만들기는 총 7종의 교과서에, 춤동작 만들기는 총 2종의 교과서에 노래 만들기과 가면극 만들기는 총 1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었다.

‘천재2’·‘태성’ 교과서는 창작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현 교육과정의 방향과는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창작 영역에 대한 내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4. 감상하기

감상하기는 음악 교육의 모든 세부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활동 영역으로서의 음악 감상은 음악의 표현 요소 및 음 현상에 대한 감지력 그리고 음향에 대한 민감한 반응력을 길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심미적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에서 악곡 전체를 통찰하여 듣는 활동과 함께 간단한 음악적 특징과 요소를 파악하는 감상하기가 이루어졌다면, 중학교에서는 비교, 분석적 감상과 사회·문화적 관점의 감상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중학교에서 감상 활동은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악곡

의 형식적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국악 감상영역의 이해

(1)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어떤 악곡이든 반복을 통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변화를 통하여 다양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음악에 있어서 반복과 변화의 부분을 구별하는 능력은 악곡의 감상에 매우 중요하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리듬과 가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음악의 요소들이 반복, 변화되는 부분을 구별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악곡의 형식적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

형식이란 악곡의 구조를 결정하는 원칙과 질서를 의미한다. 음악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곡을 구성하는 요소들(동기, 작은악절, 큰악절, 한 도막 형식, 두 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악곡의 내용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음악은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파악하고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음악은 놀이, 노동, 산업, 의식, 정치 등 여러 사회적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또, 음악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생성된다. 그러므로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악곡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4)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중학교 1학년의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 감상하기는 역사상에 나타나는 음악 사조와 특징의 변화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다. 국악의 경우, 상고 시대, 삼국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갑오개혁 이후(근대), 현대 등의 시대적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바른 감상 태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음악을 대하는 것이다. 이는 내적으로는 음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바른 자세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에 대한 애호심,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과

소리의 흐름을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생애에 걸쳐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생활화하는 데 기초가 된다.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감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음악을 집중하여 들은 후 음악의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등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음악을 즐겁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

다른 예술과 관련성 탐색하기는 음악과 타 예술과의 관련성을 찾아 음악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을 통해 예술 분야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³¹⁾

나. 국악 감상영역의 내용

<표 21> 감상영역의 내용 분류

출판사	영역	감상 영역 내용 분류
	교문	1.가야금 산조 2.프론티어 - 양방언 작곡 3.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4.북청 사자놀이 5.만선 - 황의중 작곡 6.천년만세
	교학	1.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2.대금 12울명 중 주요3,5음 3.판소리 심청가 중 “어허둥둥 내 딸” 4.관현악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이성천 작곡 5.거문고 산조 (신쾌동류) 6.종묘제례악 7.가곡 8.해금 협주곡 “방아타령” - 김영재 작곡

<p style="text-align: center;">금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묘제례악 2.현악 영산회상 3.산조 4.시나위 5.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6.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7.가곡 “초수대엽” 8.여민락 9.판소리 “쑥대머리” 10.단가 “진국명산”
<p style="text-align: center;">더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박범훈 작곡 2.창극 “심청전” 3.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4.판소리 흥보가 중 “심술타령” 5.대취타 6.취타 7.“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 이성천 작곡 8.해금 산조
<p style="text-align: center;">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영산회상 “세영산” 2.창작국악 “여행”- 3.가곡 “동창이 밝았느냐” 4.단가 “진국명산” 5.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6.가야금 산조 7.시나위 8.수제천 9.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10.창극 “심청전” 11.영산회상 - “염불 도드리” 12.영산회상 - “타령” 13.창작 국악 “산행” - 김영동 작곡 14.창작 국악 “어린 왕자” - 강상구 작곡

	15.승무
미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관악 영산회상 “상영산” 2.현악기를 위한 “신바람 메나리” - 류형선 작곡 3.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4.창작 국악 “방향” - 이경섭 작곡 5.아쟁 산조(박종선류) 6.창작 국악 “프론티어” - 양방언 작곡 7.창작 국악 “카논 with beat box” (숙명가야금 연주단)
박영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2.가곡 “초수대엽” 3.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4.단가 “진국명산” 5.산조 6.대취타 7.종묘제례악
법문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가야금 산조 2.시나위 3.양주별산대놀이 4.대취타 5.취타 6.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7.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성안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판소리 “춘향가” 2.시나위 3.가야금 산조 4.종묘 제례악 5.대취타 6.취타 7.창작 국악 “침향무” - 황병기 작곡 8.창작 국악 “신뱃놀이” - 원일 작곡 9.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세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가곡 “우조 초수대엽” 3.판소리 “홍보가 중 박타령” 4.단가 “만고강산” 5.창극 “심청가 중 뱃노래” 6.가야금 산조(박상근류) 7.시나위 8.풍물놀이 9.사물놀이 10.종묘제례악 11.창작 국악 “대바람 소리” - 이상규 작곡 12.창작 국악 “신모듬” - 박범훈 작곡
지학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2.대취타 3.대금산조 4.취타 5.여민락 6.종묘제례악 7.3도 지역 사물놀이 8.창작 국악 “프론티어” - 양방언 작곡 9.창작 국악 “산도깨비” - 조광재 작사·작곡
천재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 이성천 작곡 2.문묘제례악 중 “송신황중궁” 3.종묘제례악 중 “희문” 4.영산회상 중 “타령” 5.창작 국악 슬기둥의 “신푸리” 6.해금 산조-지영희류 7.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8.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9.창작 국악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10.판소리 “심청가 중 아버지와 이별하는 대목”
천재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2.“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 이성천 작곡 3.김죽파 가야금 산조 4.판소리 “홍보가”

	<p>5.창극 “홍보가”</p> <p>6.창작 국악“국화 옆에서” - 서정주 시, 황병기 작곡</p> <p>7.“공무도하가”-이상은 작곡</p> <p>8.문묘제례악</p> <p>9.여민락</p> <p>10.창작 국악 “신모듬” - 박범훈 작곡</p>
태림	<p>1.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p> <p>2.대취타</p> <p>3.취타</p> <p>4.퓨전국악 “너영 나영”</p> <p>5.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p> <p>6.판소리 “춘향가 중 암해어사 출두”</p> <p>7.창극 “춘향가”</p> <p>8.시나위</p> <p>9.가야금 산조</p> <p>10.창작 국악 “프론티어” - 양방언 작곡</p>
태성	<p>1.전래동요 “자장가”</p> <p>2.종묘제례악</p> <p>3.판소리 “홍보가 중 화초장 대목”</p> <p>4.단가 “사철가”</p> <p>5.창극 “홍보가 박타는 대목”</p> <p>6.가야금, 대금, 해금 산조</p> <p>7.시나위</p> <p>8.시조 “동창이 밝았느냐”</p> <p>9.가곡 “우조 초수대엽”</p> <p>10.창작 국악 “신모듬” - 박범훈 작곡</p> <p>11.창작 국악 관현악 “신벚노래”-원일 작곡</p> <p>12.창작 국악 “뷰티풀 코리아”</p> <p>13.창작 국악 “가시버시 사랑” - 이병욱 작곡</p>
현대	<p>1.현악 영산회상</p> <p>2.시조“동창이 밝았느냐”</p> <p>3.창작 국악 “상주 모심기 노래” - 백대웅 작곡</p> <p>4.“prince of jeju”-양방언 작곡</p>

	5.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 6.사물놀이 “영남가락” 7.북청 사자놀이 8.종묘제례악 9.산조
--	---

현재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감상영역의 제재곡을 장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22>와 <표 23>은 크게 기악곡, 성악곡, 창작곡으로 나누고 다시 기악곡은 독주, 줄풍류, 실내악, 대풍류, 관현악, 취타, 농악으로 구분하고 성악곡은 민요, 가악, 민속극, 판소리, 단가, 창극으로 구분하여 감상곡을 분석하였다.

<표 22>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 분류-기악곡

영역 출판사	기악곡						
	독주	줄풍류	실내악	대풍류 32)	관현악	취타	농악
교문	가야금 산조	천년 만세 ³³⁾					
교학	거문고 산조				종묘 제례악 34)		
금성	산조	영산 회상 ³⁵⁾	시나위 36)	여민락 37)	종묘 제례악		
더텍	해금 산조					대취타 38), 취타 ³⁹⁾	
두산	가야금 산조	영산 회상	시나위	수제천 40)			
미래	아쟁 산조			영산 회상 ⁴¹⁾			
박영	산조 ⁴²⁾				종묘	대취타	

31)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0)』 (2009) pp.151-53

					제례악		
법문	산조		시나위			대취타, 취타	
성안	산조		시나위		종묘 제례악	대취타, 취타	
세광	가야금 산조		시나위		종묘 제례악		풍물 놀이, 사물 놀이
지학	대금 산조			여민락	종묘 제례악	대취타, 취타	사물 놀이
천재1	해금 산조	영산 회상			종묘 제례악, 문묘 제례악 43)		
천재2	가야금 산조			여민락	문묘 제례악		
태립	가야금 산조		시나위			대취타, 취타	
태성	가야금, 대금, 해금 산조		시나위		종묘 제례악		
현대	산조	영산 회상			종묘 제례악		사물 놀이

- 32) 줄풍류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피리, 대금과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음악을 말한다.
- 33)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로 구성된 모음곡이다.
- 34)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에 거행되었던 음악이다.
- 35) 현악 영산회상을 뜻한다.
- 36) 여러 악기가 각기 자유롭게 저마다의 선율을 연주하는 가운데 이음성 현상이 나타나며, 조화를 이루는 음악이다.
- 37) 세종대왕에 의해 창작된 곡으로, 관현 반주에 맞추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성악곡이었으나 현재는 기악곡화 되어 전한다.
- 38) 군영악대의 음악으로 주로 임금의 거동이나 현관의 행차, 군대의 행진 또는 개선 등에 쓰였다.
- 39) 대취타를 관현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곡이다.
- 40) 궁중의 각종 연례와 임금의 거동 때도 사용되었으며 정재의 반주음악으로 쓰였다.
- 41) 관악 영산회상을 뜻한다.
- 42) 기악 독주곡으로 남도 무속음악의 시나위와 판소리의 가락에서 발생한 음악이다.

기악곡에 독주는 여러 악기의 산조를 16종 교과서 모두 제시하고 있다. 줄풍류는 ‘교문’ 교과서에서 천년만세를 수록하고 있으며, ‘금성’·‘두산’·‘천재1’·‘현대’ 교과서에서 영산회상을 수록하고 있다. 실내악은 ‘금성’·‘두산’·‘법문’·‘성안’·‘세광’·‘태림’·‘태성’ 교과서에서 시나위를 수록하고 있다.

대풍류는 ‘금성’·‘지학’·‘천재2’ 교과서에서 여민락을 수록하고, ‘두산’ 교과서에선 수제천을 수록하고, ‘미래’ 교과서에선 영산회상을 수록하고 있다. 관현악은 ‘교학’·‘금성’·‘박영’·‘성안’·‘세광’·‘지학’·‘태성’·‘현대’ 교과서에서 종묘제례악을 수록하고, ‘천재2’ 교과서에선 문묘제례악을 ‘천재1’ 교과서에선 종묘·문묘제례악을 수록하였다. 취타는 ‘더텍’·‘박영’ 교과서는 대취타를 수록하고, ‘법문’·‘성안’·‘지학’·‘태림’ 교과서는 대취타와 취타를 수록하였다. 농악은 ‘지학’·‘현대’ 교과서에서 사물놀이를 수록하고, ‘세광’ 교과서는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수록하였다.

16종 교과서에서 기악곡의 독주곡으로 가야금 산조, 줄풍류는 영산회상, 실내악은 시나위, 대풍류는 여민락, 관현악은 종묘제례악, 취타는 대취타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진 감상곡이다.

<표 23> 감상영역 장르별 내용 분류

영역 출판사	성악곡						창작곡
	민요 44)	시조· 가곡	민속극	판소리	단가	창극	
교문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 냐	봉산 탈춤				프론티어 만선
교학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 냐		심청가			농악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금성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 냐, 초수대 엽		춘향가	진국 명산		신모듬

43)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에서 유학의 시조인 공자와 그 제자들을 기리기 위해 지낸 제례에 수반되는 음악을 가리킨다.

44) 감상영역에 제시된 민요는 가창영역에서도 제시되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제제곡을 나열

더택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홍보가	진국 명산	심청전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신모듬
두산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태산이 높다하 되		춘향가	진국명 산	심청전	산행 어린왕자 여행
미래	여러 지방의 민요	청산리 벽계수 야					신바람 메나리 방향 프론티어 카는 with beat box
박영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초수대 엽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홍보가	진국 명산		
법문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춘향가			
성안	여러 지방의 민요	청산리 벽계수 야		춘향가			침향무 신밧놀이
세광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우조 초수대 엽		홍보가	만고 강산	심청전	대바람 소리 신모듬
지학	여러	동창이					프론티어

	지방의 민요	밝았느냐					산도깨비
천재1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태산이 높다하되		심청가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신푸리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천재2	여러 지방의 민요	태산이 높다하되		홍보가		홍보가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국화 옆에서 공무도하가 신모듬
태립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춘향가		춘향가	프론티어
태성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우조 초수대엽		홍보가	사철가	홍보가	자장가 신모듬 신뱃놀이 뷰티풀 코리아, 가시버시 사랑
현대	여러 지방의 민요	동창이 밝았느냐				춘향가	상주 모심기 노래, prince of jeju

성악곡에서 16종 교과서 모두 민요를 감상영역에 수록하고 있다. ‘교문’·‘교학’·‘금성’·‘더텍’·‘박영’·‘법문’·‘세광’·‘지학’·‘태립’·‘태성’·‘현대’ 교과서에서 동창이 밝았느냐를 수록하고, ‘미래’·‘성안’ 교과서는 청산리 벽계수야를 수록하고, ‘천재2’ 교과서는 태산이 높다하되를 수록하고, ‘두산’·‘천재1’ 교과서에는 동창이 밝았느냐와 청산리 벽계수야 2곡을 감상곡으로 수록하여 16종 교과서 모두 가곡을

하지 않았다.

제재곡으로 수록함을 볼 수 있다. 민속극에서는 ‘교문’ 교과서에서만 유일하게 봉산탈춤을 수록하였다. 판소리는 ‘교학’·‘천재1’ 교과서는 심청가를 수록하고, ‘더텍’·‘세광’·‘천재2’·‘태성’ 교과서에서는 흥보가를 수록하고, ‘금성’·‘두산’·‘법문’·‘성안’·‘태림’ 교과서는 춘향가를 수록하고, ‘박영’ 교과서는 판소리 5바탕을 모두 다 수록하였다. ‘교문’·‘미래’·‘지학’·‘현대’ 교과서는 판소리를 수록하지 않았다. 단가는 ‘금성’·‘두산’·‘박영’ 교과서에서 진국명산을 수록하고 ‘세광’ 교과서에선 만고강산을 ‘태성’ 교과서에선 사철가를 수록하여 총 5종의 교과서에서만 제시하였다. 창극은 ‘더텍’·‘두산’·‘세광’ 교과서에서 심청전을 수록하고, ‘천재2’·‘태성’ 교과서에선 흥보가를 수록하고, ‘태림’·‘현대’ 교과서는 춘향가를 수록하여 총 7종의 교과서에서만 제시되었다. 창작곡은 ‘박영’·‘법문’ 교과서에서만 제시되지 않고 14종 교과서에서는 모두 다루어졌다.

16종의 교과서에서 성악곡의 민요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가곡은 동창이 밝았느냐를, 판소리에서는 춘향가를, 단가에서는 진국명산을 창극에서는 심청전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진 감상곡이다, 창작곡에서는 신모듬이 5종 교과서에서 수록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이 4종 교과서에 수록되고, 프론티어 역시 4종 교과서에 수록되고, 신뱃놀이가 2종 교과서에 수록됨을 볼 수 있었다.

국악 감상곡은 필수곡이 많기는 하지만 공통악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국악을 대표할 만한 필수악곡들은 반드시 교과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는 현행 중학교 1학년 교과서들이 2007년 음악과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적용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16종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자 각 교과서 별로 제재곡을 분석한 결과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44.4%에서 최저 20%로 서양가곡이 3/2에 해당하는 반면에 국악은 3/1 또는 5/1정도를 차지하여 서양가곡의 수와 비교할 경우 그 내용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분류한 서양가곡은 외국가곡과 한국가곡을 말한다.

각 교과서마다 수록내용을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첫째, 가창영역에서는 16종 교과서에서 총 178곡 중에서 민요는 116곡, 창작국악 31곡, 가곡 16곡, 전래동요 6곡, 판소리·단가·타령 2곡씩, 가곡·취타·고려속요 1곡씩 10개의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수록되었지만 그 비율은 현저한 차이로 균형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민요가 116곡을 차지하여 너무 한 장르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민요 중에서도 남도, 경기, 동부 민요권에 비해 서도 민요와 제주도 민요의 제재곡 수가 적었다. 허나 각 지역별 대표 민요 5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며 학습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기악영역에서는 각 교과서마다 다양한 악기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나 장구와 단소와 사물놀이에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장구의 구조 명칭과 단소의 운지법이 통일성이 없으며, 현악기에 대한 내용은 현악악기 설명으로만 한정되었다. 또한 장구나 단소는 구비하기 편하고 쉽게 연주가 가능한 악기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창작 영역은 즉흥연주하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16종 교과서중 1종 교과서만 수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한 악기 연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변성기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악 연주의 기회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음악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풍부한 경험과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한다. 그러므로 기악 학습은 연주기능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악곡의 표현성을 체험함으로써 음악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음악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감상영역에서는 필수곡이 많기는 하지만 공통악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창, 기악영역에 있어 감상영역과 함께 제시된 제재곡들이 많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각 영역별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요를 선정함에 있어 각 지역별로 특징 있는 민요를 고루 수용하고 다양한 악곡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중학교 수준에 맞는 민요뿐만 아니라, 판소리, 국악가요, 시조, 가사, 가곡, 시조, 잡가, 고려가요 등을 다양하게 수록함으로써 풍부한 음악을 다채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악영역의 악기에 대한 내용은 현악기 소개와 연주법을 자세히 실어 우리의 음악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각 출판사별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기의 내용이 달라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교과서 제작시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기의 실제 연주 동영상 및 시청각 자료를 여러 매체로 제작하여 교과서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욕구이다. 따라서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물체를 두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한 악기 연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변성기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악 연주의 기회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음악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풍부한 경험과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한다. 그러므로 기악 학습은 연주기능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악곡의 표현성을 체험함으로써 음악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음악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감상영역은 학생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그 실시가 용이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과정에서 감상되어야 할 국악내용이 현 교과서의 사전적 설명에만 그치지 말고 다양하고 상세한 곡의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용 감상교재를 개발하고 널리 보급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국악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 편집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교과서마다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국악 내용을 수록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음악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라 포용적인 가치관을 갖고 다루되,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음악을 음악 활동에서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인식이 필요

할 것이다.

학생들이 여러 음악을 다양하게 이해하면서 그 중에 국악의 역할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이 성장하여 이루게 될 우리 사회는 음악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야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만족의 음악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덕원 외 3 (2009).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 개정교육과정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0).
-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 (2009).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 (2009).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 김미숙 외 3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더텍스트
- 김유경 (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2010년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 연구-가창 영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승 외 3 (2010). 중학교 음악 1. 경기: 법문사
- 김정은 (2007). 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 내용 분석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200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해수 와 2 (1997). 전통 음악 개론.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 문진 (2001). 고등학교 국악가창 교육 -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가창편. 서울: 국립국악원.
- 문재숙 (2009). 이해하면 사랑하는 韓國音樂 서울: 민속원.
- 민은기 외 2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천재교육
- 백병동 외 4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천재교육
- 宋芳松 (2003). 漢國音樂通史. 서울: 一潮閣.
- 양종모 외 4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금성출판사
- 유진주 (2010).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미 외 3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현대음악
- 윤명원 외 3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지학사
- 이주연 (2007).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9종 음악 교과서 분석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홍수 외 2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교학사
- 장기범 외 4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미래엔 컬처그룹
- 전낙표 외 2 (2010). 중학교 음악 1. 경기: (주)교문사
- 정옥희 외 5 (2010). 중학교 음악 1. 경기: 성안당

- 조효임 외 3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태림출판사
- 주광식 외 3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주)박영사
- 주대창 (2009).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 주대창 외 3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도서출판 태성
- 최은식 외 9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두산동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9). 2009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악분야 하반기 강사연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0). 2010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악분야 상반기 연수 교과·재량.
- 하연주 (2010).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한 국악 가창영역에 대한 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화병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 교육	학 번	2008809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박 나 영 한문 : 박 나 영 영문 : Park Na-Young				
주 소	광주 광역시 남구 월산동 덕림제일APT 102동 503호				
연락처	E-MAIL : park-850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Middle School 1st grade Music Text Book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1 년 2 월 일

저작자: 박 나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